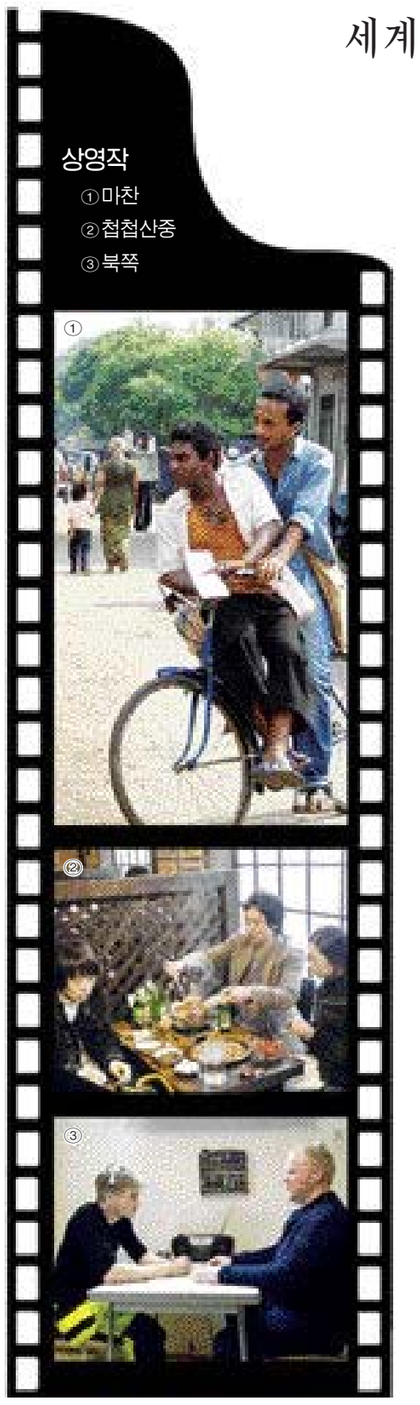
“영화의 도시 전주로…” 스크린 초대장

‘2009 전주국제영화제’ 30일 화려한 개막

영화팬들을 사로잡아온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10돌을 맞았다. 지난 2000년 ‘자유, 독립,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는 디지털과 독립·대안 영화를 통한 실험성을 주목하면서도 관객들과 꾸준한 소통을 해왔다.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영화의 거리 내 극장 등에서 열리는 ‘2009 전주국제영화제’에는 42개국, 200여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중 장편 52편과 단편 32편은 아시아 또는 세계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며 2003년 이후 중단했던 ‘한국영화 회고전’을 재개했다.

세계 42개국 200여 작품 선보여

개막작 ‘숏! 숏! 숏!’ 폐막작 ‘마찬’



▲화제 중심, 개·폐막작

개막작 ‘숏! 숏! 숏!’은 ‘돈’이라는 주제 아래 젊은 감독 10명이 참여해 만든 옴니버스 영화다. 권종관·김성호·김영남·윤성호·이송희일 등 충무로와 독립영화계의 젊은 영화감독들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오달수·임원희·조은지 등이 출연했다.

폐막작은 스리랑카 영화 ‘마찬’이다. 스리랑카어로 ‘친한 친구’라는 뜻인 ‘마찬’은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빈민가 청년들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다.

▲영화제의 얼굴, ‘디지털 3인 3색’

2000년부터 시작된 전주영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주최측이 세 명의 감독을 선정,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방문(VISITORS)’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홍상수 감독은 문성근·이선균·정유미를 캐스팅해 제작한 ‘첩첩산중’을 선보이며 가와세 나오미는 ‘코마’를, 필리핀 라브 디아즈 감독은 ‘나비들에겐 기억이 없다’를 제작했다.

▲최고작을 가린다, 국제 경쟁

전 세계 신인감독들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 섹션이다.

광고 촬영을 소재로 한 소녀의 성장담을 그린 라드 주드 감독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알제리 타리크 테기아 감독의 ‘인랜드’, 신경쇠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전직 스키 챔피언에 관한 코미디 영화 ‘북쪽’ 등 장편극영화와 다큐멘터리 13편을 만날 수 있다.

▲거장을 만난다, 시네마스케이프

자신만의 영화 미학을 완성한 세계적인 감독들의 신작과 주목할만한 중견·신진 감독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다른 조건을 가진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앤드류 부잘스키 감독의 ‘밀랍’, 가족 코미디 영화인 나이토 다카츠구의 ‘다크 하버’, 포루투갈 거장 올리비에라 감독의 ‘금발 소녀의 기벽’ 등 9편이 상영된다.

▲국내 화제작, 한국영화 쇼케이스

2008~2009년 제작된 영화 중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들을 보여준다. 각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상영작은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초감각 커플’, ‘멋진 하루’, ‘아내가 결혼했다’, ‘영화는 영화다’, ‘작전’이다.

▲재미있는, 영화궁전

영화 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코너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미아와 거인 미구’,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일곱 아이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린 ‘나만의 하늘’, 교실에 등장한 돼지 한마리를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츠마부키 사토시 주연의 유쾌한 영화 ‘돼지가 있는 교실’ 등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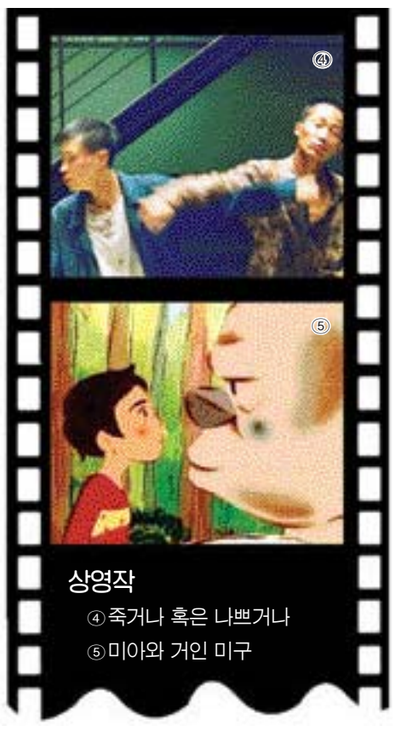
▲역사 한자리에, 10주년 기념상영

전주영화제가 소개한 감독들의 작품을 만나는 ‘JIFF가 발견한 감독 열정’, 수상작 감독들의 신작을 상영하는 ‘수상자의 귀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다시 보고 싶은 전주영화제’로 구성돼 있다.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 류승환 감독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정병길 감독의 ‘우린 액션 배우다’, 오기가미 나오코 ‘요시노 이발관’, 베니토 잠브라노의 ‘하바나 블루스’ 등이다.

그밖에 ‘다찌마와 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와 ‘고고 70’, ‘경축 우리 사랑’, ‘님은 먼 곳에’ 등을 상영하는 ‘야외 상영’, 스페인 아방가르드 영화의 거장 페레 포타베야 특별전, 실험적인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보다 낯선’, 폴란드 출신 거장 예르지 스콜리모프스키 회고전 등을 준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상영작 티켓 5천원 청소년특별전 무료

▲티켓 구매

개·폐막식 1만원, 일반 상영작 5천원. 청소년 특별전 상영작은 무료 관람.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2시30분까지 현장 티켓 판매. 공무원 연금 매장 주차장, 지프서비스 센터 1층(옛 아카데미아트홀 1층)

▲상영관

메가박스, CGV, 프리머스, 전주 시네마타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지프스페이스 내 야외 상영장(옛 공무원 연금 매장) www.jff.or.kr

장기하와 얼굴들

“영화만 보는 게 아니죠”

장기하와 얼굴들·김창완 밴드 공연

인디밴드·비보이들과 흥겨운 난장

영화제에서는 영화만 보는 게 아니다. 인기 밴드들의 출연은 축제를 더욱 즐겁게 한다.

특히 올해는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장기하와 얼굴들’ 등 인디밴들이 대거 출연, 흥겨운 난장을 벌인다.

영화의 거리에 마련된 지프스페이스에서는 5월 1일부터 매일 오후 7시 공연이 열린다.

첫날인 1일에는 지난해 새 앨범을 내고 활발한 활동중인 김창완 밴드가 출연하며 2일에는 제3회 사이언 비보이 챔피언십 예선에 참여한 전국 비보이들의 경연이 펼쳐진다.

3일에는 요즘 최고의 화제를 모으며 ‘인디계의 서태지와 아이들’로 불리는 ‘장기하와 얼굴들’이 미미 시스터스와 함께 무대에 올라 ‘별일 없이 산다’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영화 ‘고고 70’에도 출연했던 차승우가 소속된 문샤이너스(5일), 검정치마·국카스텐(6일), 크로스오버 국악단 ‘달이 앙상블’(7일) 등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지프 광장과 영화의 거리에서도 소규모 공연이 계속된다.

지프스테이지(매일 오후 3시 30분)에서는 황보령·캐스커·한희정·메이트·김선달 프로젝트·싸지타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지프 광장에서는 빅 밴드 전북 드림사운드, 게릴라퍼포먼스 토탈아트, 전주필하모닉색소폰 앙상블, 뮤지컬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지며 영화의 거리 곳곳에서는 노리단, 토탈아트, 영화 의상 한지 패션쇼, 극단 ‘포즈’의 조각 퍼포먼스& 로드쇼 등이 준비돼 있다.

관객 참여 이벤트도 많다. 책거리-거리 도서관에서는 영화·예술 관련 도서들을 만날 수 있으며 최명희 문학관은 ‘전주발 엽서 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자전거 무료 대여소와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지프광도 운영한다.

그밖에 전주영화제작소에서는 영화제 10주년 기념전 ‘JIFF를 추억하다’와 미디어 아트 체험관을 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창완 밴드